광주지역 장애인 그룹홈 '인권사각지대'

광주시, 입소료 과다징수 등 적발

그룹홈 운영 개선 · 발전방안 마련

광주지역 일부 장애인 공동생활가정(그룹홈)에서 입소료를 턱없이 높게 받거나 개인생활을 과도하게 제재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일 광주시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56곳 가운데 30곳을 대상으로 점검을 벌인 결과 대부분의 그룹홈에서 부정운영 사례가 적발됐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아파트나 일반주택에서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사회활동 등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거주시설로 시설당 4명 이하의 장애인이 함께 생활한다. 광주에는 총 56개소 공동생활가정에 220여명의 장애인이 생활하고 있다.

이 가운데 일부 그룹홈은 입소료를 과다 징수하고 이를 장애인의 식사나 주거 등 기본생활 지원이 아닌, 자산취득 같은 시설 운영이나 종사자 업무추진비로 사용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장애인의 개인 금전을 종사자가 임의로 사용하거나 과도한 개인생활 제재, 비좁고 열악한 주거환경, 인스턴트 위주의 식사 제공 등 인권침해 사례도 적발됐다.

일부 시설의 경우 보조금으로 인건비를 받는 종사자가 다른 곳에서 근무하는가 하면 활동보조서비스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급여를 청구하는 부정 운영 사례까지 확인됐다.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은 대규모 시설과 달리 장애인 개개인의 독립적 생활을 보장하고 탈시설 자립·자활을 지원하는 대안적 모델로 주목됐으나 소수의 종사자가 운영하면서 인권 사각지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관련 법규나 운영규정이 미비한 것도 한몫 하고 있다.

광주시는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개선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TF'의 제안대로 공동생활가정 운영과 이용자를 지원하는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최소한의 운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운영매뉴얼을 제작키로 했다.

또 공동생활가정 평가제도 도입과 종사자 인권감수성·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강화하기로 했다.

전인근 광주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일부 시설 운영자의 부정운영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며 "향후 공동생활가정이 공공성을 회복하고 장애인의 자립생활이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정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도심 피서지 '광주시민의숲 물놀이장' 14일 개장

내달 19일까지 운영…만 13세 이하 무료 이용

도심 피서지로 어린이들에게 인기를 모은 '광주시민의 숲' 내 물놀이장이 14일 개장한다.

광주시는 여름방학 기간을 맞아 어린이들에게 쾌적한 물놀이 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북구 오룡동 '광주시민의 숲' 내 물놀이장을 14일 오전 10시부터 무료 개장한다고 밝혔다.

물놀이장은 8월19일까지 매주 화요일부터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되며, 만 13세 이하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다. 매주 월요일은 대청소와 시설물 점검을 위해 정기 휴일로 정하고, 태풍이나 비가 오는 날에도 안전을 위해 휴장한다.

광주시민의숲 물놀이장은 1000㎡ 규모로, 평균 수심은 20㎝다. 주요 물놀이시설로는 돌고래와 해적선, 워터드롭 등 6종이 있으며, 모든 물놀이 시설은 안전검사에서 합격판정을 받았다.

물놀이장에 공급되는 물은 100% 수돗물이고, 사용한 물은 재사용하지 않고 매일 새로운 물로 교체된다. 또한 15일마다 수질검사를 하는 등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물놀이를 즐길 수 있도록 수질 관리에 철저를 기한다는 계획이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교육을 이수한 안전관리요원 9명이 배치되며, 비상약품을 비치해 응급상황에도 대비키로 했다.

물놀이장 주변에는 오름놀이터와 트리하우스, 유아대피소 등이 갖춰져 있으며, 인근에 야영장도 조성돼 어린이들이 물놀이와 함께 다양한 체험을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푸른도시사업소는 쾌적한 물놀이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해온 그늘텐트를 고정 시설물로 바꾸고, 바닥 포장재를 전면 교체하는 등 시설을 개선한데 이어, 탈의실과 샤워장 설치도 마쳤다.

'청년은 하나다'…2018 세계청년축제 13일 개막

청년들의 문화난장이 될 '2018 세계청년축제'가 13일부터 15일까지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일원에서 펼쳐진다.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의 문화행사로 시작한 세계청년축제는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기획하고 실행하는 성장형 축제로 이어지고 있다.

올해 제4회 세계청년축제는 '청년은 하나다'라는 주제로 4개 분야 21개 프로그램이 선보인다.

5·18민주광장 주무대에서는 이 시대 청년들의 이야기를 뮤지컬로 엮은 개막퍼포먼스 '청년, 100인의 삶을 노래하다'를 시작으로, 방송인 유병재씨와 함께하는 '토크콘서트-발칙한 청춘', 전국대학생패션연합회 'OFF'의 런웨이 패션쇼, 전라도?충청도 대학생들의 끼 공연 '상상청춘적쇼' 등이 펼쳐진다.

ACC 하늘마당에서는 시민과 청년들의 양방향 소통형 커뮤니케이션 프로그램인 '청춘라디오'를 진행한다.

ACC 옥상정원에서는 여행과 유학에 관한 지식을 공유하는 '세계탐구생활'이, 옥상정원 소무대에서는 외국인 공연팀의 다채로운 버스킹 공연이 이어진다.

이와 함께 갈라뮤지컬 '청춘을 달리다' 공연과 청년 댄서들의 배틀대회, 청춘고민포차, 플리마켓 등도 펼쳐진다.

이지훈 2018 세계청년축제 청년감독은 "이번 축제에 청년들의 다양한 고민과 경험, 이야기들을 담아내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

조인호 기자

광주교육청, 불편한 여름교복 대신 '생활교복'

광주시교육청이 학생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여름교복 착용과 관련, 편의성과 경제성, 디자인 등을 고려한 생활교복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다.

광주시교육청은 중·고등학교 여름교복 운용 현황을 조사하고 교복간소화 방안을 단위학교에 권고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이번 권고를 통해 교복간소화 방안 예시를 전달하며 실용성·편의성·경제성·디자인 등을 고려해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생활교복 운용을 적극 권장했다.

지난달 진행한 여름교복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중·고등학교 158교 중 교복이 없는 학교가 7교(중 5, 고 2), 교복만 입는 학교가 69교, 생활복(생활교복)만 입는 학교가 36교, 생활복과 교복을 병행하는 학교가 44교, 교복에서 생활복으로 전환 중인 학교가 2교로 나타났다.

조인호 기자

임택 동구청장, 정부예산 확보 잰걸음

임택 광주 동구청장은 취임 후 첫 외부행보로 행정안전부와 국회를 방문하고 필요한 정부예산 확보활동을 펼쳤다.

임 청장은 먼저 10일 오전 행정안전부를 찾아 심보균 차관을 예방하고 지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견인할 특별교부세 지원 사업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서 임 청장은 △일자리이모작 평생학습복합센터 조성 △동구국민체육센터 증축 △지원4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국비지원 필요성과 당위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당부했다.

임 청장은 또 이날 오후에는 국회를 찾아 지역구 국회의원인 박주선 의원을 방문·면담하고 지역발전의 토대가 될 국가예산 확보에 힘써 줄 것을 요청했다.

서구, 사회적가치 구현 위한 혁신 교육 실시

광주 서구가 지난9일 간부공무원을 대상으로 사회적가치 구현을 위한 혁신 교육을 실시했다.

간부공무원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고 정부혁신의 이해와 공감을 통한 혁신 추진동력을 확보하여 혁신 방향에 맞는 구정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것.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를 말한다.

이날 교육은 새 정부의 국정철학인 '사회적가치'에 대한 이해와 내재화로 혁신 역량을 강화하여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남구, 9월까지 방역 민원 콜센터 운영

광주 남구는 모기 등 위생 해충에 의한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지역 주민들이 건강하게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방역 민원 콜센터를 운영한다.

10일 남구에 따르면 방역 민원 콜센터는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모기 등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위생 해충을 차단하고, 주민들의 일상 생활을 살아가는데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하기 위해 오는 9월말까지 운영된다. 남구는 모기 등 위생 해충에 따른 민원 신고가 방역 민원 콜센터(☎ 607-4341~3)로 접수되면 곧바로 직원들을 현장에 급파해 방역작업이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남구는 비좁은 골목길로 인해 공공기관의 방역 손길이 미치지 않은 사각지대에 대한 관리를 위해 남구 주민들을 대상으로 휴대용 방역장비 무상 대여 서비스를 오는 9월까지 실시하고 있다.

북구, 대구 달서구와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

광주 북구가 대구시 달서구(구청장 이태훈)와 지역문화 탐방 및 수련·친교활동을 통해 지역 간 화합을 다지는 홈스테이 행사를 추진한다.

북구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초등학생 4~6학년을 대상으로 자매도시인 대구 달서구와 함께하는 '청소년 홈스테이 교류행사' 참가자 40명을 선착순 모집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달 8일부터 10일까지 3일간 진행되며, 달서구 청소년 20명을 광주로 초청하고, 20명의 관내 청소년들이 대구를 방문하는 상호교류 형태로 이뤄진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소년들은 참가 신청서를 작성해 북구청 여성가족과로 방문 또는 팩스 신청하면 되고,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다.

광산구 비아동 지사협, 건강한 여름나기 복달임

9, 10일 광주 광산구 비아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황관종)가 초복을 앞두고 어르신과 국가유공자 등 250여명을 초청, 복달임 행사를 열었다.

식사대접과 간식선물 전달로 구성된 이날 행사에서 황관종 위원장은 "맛있게 드시고 즐거워하시는 어르신들 모습에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동 지사협이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행사를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아동 지사협은 이날 행사 이외에도 '초등학생 사랑의 운동화지원' '무더위쉼터 에어컨정비 지원' 등 다양한 나눔문화 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장성 · 장흥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설립 ■기장대리
■양도상속증여 ■건설면허신청
■기업진단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